

一 北譜修刊辭

옛 글에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한다면 그銳利함이 쇠도 끊는다(二人同心 其利斷金. 周湯 하였고 同心이면 同德이라 하였으니 同心同德者야 말로 우리 小北人들이라 하겠다)

北譜가 創始 된 年代는 不明하다. 또 누구에 의하여 編製 된 것도 不明하다. 다만 北譜는 小北人 各家의 世系를 略記하여 綜合한 것이므로 大小北이 分派된 때부터 시작 되고 있다

우리는 先祖에서부터 八約條의 精神을 바탕으로 自肅하고 自戒하여 東西南北 이二 黨과도 가까이 하지 않고 또 미워함없이 處世하므로서 八文章 七學士 五君子 등 名望이 一世를 뒤쫓는 人物도 輩出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距今 六十餘年前으로 推定되는 同一親睦會(創建當時는 同一社라稱하였다)라 하는 우리의 親睦機關이 創設運營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光海朝에서 大北에 의한 母后의 廢黜과 兄弟 殺戮 등 悖倫亂常의 變故가 恣行 되었으므로 이에 反旗를 들고 갈라져 나와 論駁討罪한 一派가 있었다

이것이 距今 三百餘年前의 일이나 그동안은 統一 된 譜冊이 없었다. 다행히 그후 어느時代인가 이二人士에 의하여 蒐集編成 된 北譜가 있어 世間에 轉寫傳播 되어 오는바 그 卷帙이 各々一致하지 않음은 辨 아니라 그 內容도 相異한 部分이 많은지라 歷代諸賢이 이것의 統一 된 刊行을 計畵하였으면서 아직껏 그 實現을 보지 못하여 왔다

그런차에 昨春부터 柳連秀 任行宰 柳元熙 諸友가 統一北譜刊行에 뜻을 두고 여러 準備作業을 하여 오던中에 마침 同一親睦會의 李康年會長의

聲援을 얻어 이제 有終의 美를 거두게 되었으니 기극히 多幸한 일로서

三百年來의 快舉라 아니할수 없고 同慶하여 마치 안느바이다

더욱 本譜의 收軍에서 부터 上梓(印刷)에 이르기 까지 全力한 任行宰

會友의 書役을 獨担한 柳元熙 會友의 勞苦를 特記하여 深々한 謝意를

表한다 現存한 北譜中에서 가장 具備하다고 볼수 있는 李康年 會友의 所

藏本을 基準으로 六十九家의 世系를 蒐集하여 編輯한것이 이번의 北譜인바

一部的 收軍이 未著하여 完全을 期하지 못한 점 甚히 遺憾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장차 이 北譜는 옛 부터 小北을 自處하여 오는 同志들의

집과 집을 한곳에 結束하는 든든하고 힘 있는 紐帶가 될것이며 相互 親

睦을 增進하는 媒介체가 될것을 믿어 疑心치 않는다

이번에 우리가 적지 않은 時間과 努力을 기울려 小北 배우 以來의 巨

役을 끝맺는 意義가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血屬이면 어찌 이보다 親近

할수 있겠는가 이제 印刷에 回附함에 즈음하여 後進에게 간곡히 부탁하노

니 모른지기 우리의 뜻하느바에 길이 留意하고 世代를 거듭할수록 나보다

홀륭한 子孫을 길러내어 無窮한 幸福을 누리며 서로 찾고 서로 도와

萬世 내려가며 변함 없는 義理와 情誼를 敦篤히 하는데 努力할것을 真心

으로 바란다

一九八三年(癸亥)三月 日

二 編纂委員

竹軒 鄭載 漢草溪人 玄谷 金春 永清風人

南江 任行 宰豐川人 仁壽 李康年 全州人

寬齋 南慶 祐宜寧人 梧庵 朴晟 九高靈人

東溪 朴紀 遠密陽人 駱雲 柳元熙 全州人

北譜序

其一

國朝仕宦之家皆不免於黨目之稱其家數無慮千百此六十九家之為小譜何貴不黨也其始分黨也以一二人之是非為東為西為北為南明辨之不止強聒之剛者激者羽翼者敵勢者憤怒者傾奪者僥起而不止互相詆斥甲進則乙退此盛則彼衰升沉立判禍福隨之以致枝上生枝葉上生葉西人起則東幻而歸西南人振則北變而趨南之擊西緩峻不同則派而為清濁西之敵南扶抑各殊則歧而為老少及乎南之敗也清濁復合為一西之興也老少終乃為二遂成鼎足殆若瓜分永以為三色之目始知一邊盛則一邊之中又分為二此其勢然也大抵黨目之弊同者援之異者擠之熱者戴之寒者蹙之譽之則瓦缶雷鳴毀之則白壁沉淵族戚或為仇怨楚越或為骨肉甚至一城之內婚姻不相通片言之間卿相可以得庸之冒沒之北軍側肩而好為標榜而必欲先登立幟

也。以故舉世滔々靡然從之。鄉曲愚駭之。流輿僅下賤之輩。自補曰老
 論或祢以少論。或論以南人戴頭履趾者。沒入三色之目。獨此六十九家。超
 然脫然。惟其古家。法終始不渝。視三色之是非。如鄉鄰之有聞不款。
 披髮纓冠於其間。既不毀譽於東西。又南北無愛憎。老少無恩怨。見
 忠賢則敬愛之。見邪佞則懲討之。無論彼此。不相甲乙。處世如虛舟。
 故上下二百餘年。無有一人或致尊顯。無有一人或陷亂。遂豈非所守約
 而所操堅乎。傳曰。君子不黨。貴其不黨乎。一違也。如將強而為黨。東
 西南北皆吾黨也。其為黨也。豈不蕩々乎哉。孔子曰。周而不比。

北譜序文解釋

우리 나라 朝廷에 베풀하는 직들은 누구나 黨首의 名칭을 免치 못하니 그 習의 수호가
 수도 名을 짓는다. 여기 收錄된 六十九家의 지그마한 略譜는 黨을 하지 않음에 달음으로 하여 貴한
 것이다.

黨이라 함은 처음으로 갈라져 생길 때 한 두 사람의 是非로 하여 東이 되고 西가 되고 北이
 되고 南이 되었는지 그것에 그치지 않고 自己에 主張을 세우기 위하여 相對에 剛硬論을 지니
 자와 激烈하게 구는 자가 있고 그우翼이 되어 그들을 감싸 주는 자가 있고 聲勢으로 應援

을 아가지 않은 자와 남어 드리고 賢은 자들이 함께 일어나기를 다지 않아 서로 힘을 들이고 배척함을 얻음
삼음 甲이 앞으로 나가면 乙이 물러서고 이월이 盛하면 저월이 衰하고 잘 되어 일어나는 것과 못
되어 가려만 노월이 있노라 이것은 그 자리에서 結果가 判明되는 것으로서 禍와 福이 당장 이에 따
르게 마련이다. 그러하며 가지 위에 가지가 생기고 잎 위에 또 잎이 생기게 된다.

西人이 일어나면 東人이 西人으로 두집을 하고 南人이 떨어져 北人이 南人현으로 달아나고 南人이
西를 攻擊하니 穩健派와 過激派가 서로의 意見이 같이 많은 때는 새로 清과 濁으로 分派 되었으며 西
人이 南人을 對敵할 때에 扶護하는 편으로 각각 意見을 달리하다 보니 이것도 老論
과 必論으로 가지가 벌어졌다.

南人이 敗하면서 清과 濁이 다시 합쳐서 하나가 되었었고 西人이 일어나면 마침내 老論과 必論의 두派로
分派 되어 모두 三黨이 손을 발 모양을 이루어 줄여히 妥協할 줄을 모르니 이것이 三色目(三黨派)
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비로소 한월이 盛하면 한월이 또 두쪽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대저 黨派의 폐단은 같은 黨이면 무조건 도와주고 다른 黨이면 핏대들으며 자기 편에 積極
熱한 자는 推戴하고 冷靜하게 대하는 자는 貶黜하여 버리는 것이다.

自己派를 기리면 비록 기와나 용기 조각 같이 하잘것 없는 경우라도 이것에 雷鳴하고 나서
자기派를 핏대서 말한다면 비록 白璧은 지라도 검은 못에 던져 버리며 族戚이라도 흑구 원수
되고 楚와 越과 같은 양수의 사이라 핏대라도 骨肉이 되는 수가 있었으며 분하면 같은 城
중에 살면서 서로 通婚을 마나하는데 가지 이르렀다.

말한마디 사미에서 政政 判書를 얻을 수 있었으니 지각 없는 무리들은 그들과 어깨를 맞대고
지내며 안오장서서 나가지기를 自請할 뿐 아니라 반드시 高地古領에는 먼저 올라가 旗를 꽂아 땅을
세우고자 하였다.

이러하였으므로 온 세상이 물 흐르듯 파람에 나부기듯 이들을 따라갔고 시골의 어리석고 卑
賤한 무리들까지 스스로 老論이니 少論이니 일컬으며 혹은 南人이 어쩌니 하고 지저리며
이름이 여종이 모두가 三色黨派 수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홀로 이 十九家 이외에 超然하고 肅然하여 다만 옛부터 내려오는 古家

의 法度를 지키지 못하며 三統의 是非를 보기를 등대집의 外을 구경하듯하며 그禍中에
머어들어 出世를 위하여 양음에 東西를 할 줄이나 기를 깨닫지 못하고 南北과도 사랑
하지나 미워할 必要가 없음에 老幼의 恩惠와 怨讎가 없느니라 忠誠되고 어진 것을
보면 공경하고 사랑하며 간사하고 아첨하는 무리를 보면 懲治하고 聲討하였다.

(소소한 立場에서 是非는 非非主義로 삼아 對을 말함)

彼此에 甲이나 乙이라 말하지 않고 마치 빈 배(舟)와 같이 處世하였던 까닭에 이로
부터 二百餘年 동안에 한 사람의 尊顯(領議政과 같은 高官顯職을 말함)이 없
었으며 그 반면 한 사람의 亂遂에 빠진 자도 없었으니 이어 저 지기는바가 正當함이요 志
操가 굳기 까닭이 아니겠는가

傳에 말하기를 君子는 黨을 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그黨을 만들어 한된으로 기우려 지
지 않음을 貴하다 이른 것이다

만일 장차 억지로라도 이것을 黨이라 한다면 東西南北이 다 나의 黨이라 대대할 만
라 이것이야말로 일어나 크고 넓고 堂堂한 黨이 아니겠는가

孔子 말씀하시기를 君子는 나라 사랑하느 모든 사람들의 意見을 參酌하고 세상을 두루
살피 普遍性이 있는 것이고 阿附하고 간사한 한 두 사람의 偏見한된으로 치우쳐 기울지 않
는다고 하였다

以上은 淸州慶氏家에 保存되어 있는 北譜의 序文을 번역한 것으로 作者와 年代等 未詳이나 四色
分黨의 始末의 記述에서 우리 英祖朝 老少論의 蕩平策에 合意하여 實行의 勸告과 ③ 銓郎
의 特權을 革罷한 時期까지 記錄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을 미루어 英祖十七年(西紀一七四二年)
以後數年 사이에 記述된 것의 아니가 보여진다.

現時까지 保存되어 있는 北譜로서 우리의 參考한 것은 ① 宜寧南氏家本 ② 淸州慶氏家本
③ 豐川任氏家本 ④ 草溪鄭氏家本 ⑤ 全州柳氏家本 ⑥ 全州李氏家本 등이 있으나 序文이 붙어
있는 것은 淸州慶氏家本(舊本序文二)과 草溪鄭氏家本(舊本序文三)이 있을 뿐이다

北譜序

其二

北之名目昉興於昏朝戮倫之日小大清濁是已小者清而大者濁如甬瞻
仁弘輩締黨助惡釀成金鋪之禍則爲大爲濁矣始也忘身殫數終
焉杜門自靖者并二十八家而就中知制教公諱時望以太學掌議疏
請誅訒盜以及瞻弘於余爲八世祖而爲小爲清也于時名公碩儒
之立異獻議者不忝庭請者抗疏直斥者逃名仕籍者其論雖異
而其義則未必非符合於小北也於戲天運往復 仁廟撥亂奉

母后而建皇極曩之寬者伸之幽者拔之直者旌之於是小北著焉
後又有八文章七學士五君子并皆懷抱利器以鳴國之盛此乃卓々
家數也惟其雅執小心炳幾斂避名塗故後繩類多低回散班而其
係當時大議論大史禍皆不與焉則清小之目終始自古而世心以
此推詡焉舊有二司譜拔其尤清故卷帙甚小後之君子修潤而添

補之詳則詳矣而時或有猥雜之疵然亦知者知之又何病焉余於
辛巳秋以製疏弁和承 謹于北適本倅李友敬儀齋來是譜余
從而借閱於省愆之暇甚愛其詳於蕃衍卽起騰寫分編爲三冊
旣又畧弁數語以該顛末云爾

崇禎五壬午(一八三二年)端陽日草溪鄭胤永謹書于利城累舍

北譜序文解釋

北 이리 이음하느 色目은 昏朝光海朝에서 人倫이 무너져 땅에 떨어지던 날 비로소 생겼

은 小北 大北 淸北 濁北이 이것이다

小北은 말았노라 大北은 李南瞻 鄭仁弘과 같은 무리가 結束하여 惡을 助長하고 金鑄의

禍를 비쳤으니 이것이 大北이다 처음에 스스로의 몸을 돌보지 않고 비로소 남고지 하였으니

나 成果의이 끝나고 말았다 이에 門을 닫아걸고 自南하고 自重한 자가 모두

二千八家 있었다 그 중에 知製教 時望公이 太學(成均館)掌議로서 임금께 글을

올려 劾(尹)劾의 造(鄭造) 瞻(李南瞻)과弘(鄭仁弘)의 잘못을 論劾하여 죄

를 짓을 請하였으니 이분이 大北의 八代祖이며 小北이오 淸北이시다 그때 이름

있는 벼슬마치와 큰 선비들 중에 立場을 달리하는 議論을 提起한자가 있

었고 虞母를 反對하여 直接 上疏를하는 자가 있었으며 仕籍에서 이름을

얻 은 자가 있었다

이들은 그 舉措가 各各 달르게는 하지만 그 義의가 반드시 小北의 理念에

符各 되지 아님이 아니라

아 天運이 왔나 다시 돌아와 仁祖가 이치러운 政局을 다스리고 母后(仁穆大妃)를 받들어 임금자리에서 나가 일과 전에 억울하게 몰린 자를 풀어주고 幽閉된 자를 놓아주고 끝은 자를 旌表하니 이에 이르러 小北의 이름도 表面에 나타났나. 또 八支章과 七學士와 五君자가 모두 뛰어난 才能이 있어 나라안에 名聲을 떨쳤나니 이들은 가장 높이 이름난 집안을 추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들은 항상 通功히 조심하여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살았으니 後進들도 거의 모두가 各處를 배회하며 흐터져서 大議論이나 大士稱에 參與하지 않았나. 그러한즉 清小北에 薦하여 있는 사람들은 끝내 이와 같은 處世하였고 세상에서도 이렇게 미루어 알고 있었다

옛적에는 두가지 謚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더욱 많은 집안을 추렸으므로 慨은 흔히 적었다

뒤에 어떤 사람이 이것을 자세히 補充하였는데 후 당치 않은 雜記(飛)이 없지 않으나 아는 사람은 다 아는 事實이나 적정할 것이 못 된다

내가 辛巳年(西紀一八八一年) 가을에 임금께 글을 올려 永和를 주장하였다가 北方(咸鏡道 利原郡)에 귀양 갔었는데 그때 그 고을의 守令의 나의 친구 李敬儀가 이 北謚를 가져 왔다

내 이것을 빌어서 나의 허물을 自省하는 한가한 時間에 內容을 살펴 보았더니 그子孫들이 자세히 기록 되어 있는지라. 흔히 辨가워 이것을 謄寫하여서 三冊으로 나누어 꾸미고 간단한 머릿글을 의외 글이 붙어서 顛末을 밝히려 든다

草溪 鄭胤永 利城累舍 川什 谷

八文章

南谷 任翰伯 豐川人 滄溪 南 翮 宜寧人

雪峰 姜栢年 晉州人 竹堂 申 濡 高靈人

草亭 朴守玄 密陽人 麻菴 李休 綴 廣州人

汝川 沈齊 豐山人 晚洲 鄭昌 胃 草溪人

七學士

後瘳 金蓋國 清風人 李必亨 廣州人

泌川 朴彞叙 密陽人 伴鶴翁 宋 駟 礪山人

杏園 崔東立 朔寧人 秋灘 朴慶業 高靈人

雪簑 南以恭 宜寧人

救七學士補外

晚晦 李必榮 廣州人 竹泉 李德洞 韓山人

石村 慶暹 清州人

姓氏別

索引
番号

全州李氏

一

廣州李氏

二六

延安李氏

五二

咸平李氏

五八

全義李氏

六二

韓山李氏

六九

星州李氏

六三

龍仁李氏

六四

德水李氏

六五

光州李氏

六五

陽城李氏

六六

姓氏別

索引
番号

固城李氏

六九

原州李氏

六九

安城李氏

七〇

青松沈氏

七一

清風金氏

七二

慶州金氏

八一

彥陽金氏

八六

光山金氏

八七

安山金氏

八七

坡平尹氏

八八

南原尹氏

一〇四

姓氏別

索引
番号

咸安尹氏

一〇五

漆原尹氏

一〇五

海州鄭氏

一〇八

河東鄭氏

一三二

東萊鄭氏

一三七

草溪鄭氏

一三一

驪興閔氏

一三七

南陽洪氏

一六五

寧越嚴氏

一七四

豐山沈氏

一八二

晉州姜氏

一八四

宗室李氏

太宗

子補子

容子

徐子

子子諫

子對

子標

子廷賓

子沖

孝寧大君靖孝公
世宗廷子
享以陽書

寶城君李必卿茂昌女

東元君切鄭其判而漢女

呂陽君金訓道著女

蔭縣令鄭蔭正宗輔女

公舉生進文王吏判尹僉正之

景觀文壯吏佐韓監家漢女

院鄭贊成易女

子案子

子福子

子哲全子

子光胤

子光胤

子光胤

子

子李直長次

子

子

子

見下十一

女沈鋼

女

見下六

諱沖

子敏樹子

子邵子

子昌馨子

子床子

子顯復

子

子

子

見上一
廷賓子
巨谷七澤

進子春卿
進子文

進子尹
黃金正道明女

進士鄭泰判重徽女

鄭進士聖能女

見下三

子

子

子

文贊成
崔泰奉希齡女

柳泰判希亮女
金瑞賢女

女沈轍
女洪聖叙
女鄭重遠

子國馨出
女趙守弘
女洪尚賓
女洪德相
女洪山輔
女柳元鎮

子梁出

女崔配命

子

子

子

子

子

子

子

子

子

子

子

子

子

子

子

子

子

見下六

子

子

子

子

子

子